

남부지방에서 들깨의 파종기가 종실수량과 지방산 조성에 미치는 영향

권병선¹⁾, 장영석²⁾, 박희진³⁾, 조행래¹⁾

¹⁾순천대학교, ²⁾농촌진흥청 호남농업시험장, ³⁾서강정보대학

우리나라의 서남해안인 순천지역에서 파종기에 따른 종실의 수량과 지방산 조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수행코자 농촌진흥청 작물시험장에서 들깨 품종 옥동들깨를 분양받아 공시재료로 이용하였고 파종기는 5월 20일, 30일, 6월 10일로 하였으며 재식거리는 60×25cm로 직파하였다. 10a당 시비량은 N-P₂O₅-K₂O-퇴비를 4-3-2-1,000kg으로 전량 기비로 시용하였고 시험구는 난괴법 3반복으로 배치하였으며 기타는 들깨 표준재배법에 준하였다. 함유율과 지방산 분석은 작물시험장 분석법에 준하여 호남농업시험장 목포시험장에서 분석하였다. 실험결과 개화기와 개화일수의 변이폭은 파종기가 빠를수록 넓고 늦을수록 좁은 경향을 보였으며 경장은 파종기가 늦을수록 짧게 나타났고 수량구성요소인 분지수에서는 6월 10일 파종에서 16.1개로 파종기가 늦을수록 많아졌다. 이삭수와 이삭당 삭수역시 분지수와 같은 경향으로 6월 10일 파종에서 이삭수가 45.4개, 이삭당 삭수가 45.5개로 점차 많아졌다. 종실수량 또한 6월 10일 파종에서 151.5kg/10a로 많아서 파종기가 늦어질수록 높은 수량을 올렸었다. 지방산 조성은 6월 10일 파종에서 포화지방산인 팔리친산과 스테아닌산의 함량은 낮고, 불포화 지방산인 오레인산과 리놀레산의 함량은 높았다. 유분함량 역시 파종기가 늦은 6월 10일 파종에서 높아서 남부해안지역인 순천에서는 종실용 들깨 재배를 6월 10일에 파종하는 것이 이상적이라 생각되어진다.